

지역 제조 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전북중기청, 중진공 등과 함께 신설 올해 19억원 투입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24일부터 신청접수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기업을 애로 분야별로 동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근영), 전북서부지부(지부장 이병필)와 함께 전북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19억원을 투입, 바우처 발급

을 통해 도내 제조기업의 도약을 위한 혁신 활동을 집중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기업이 좀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분야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제조 소기업이며, 신청 자격을 지역기업으로 제한하여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형 지원사업 모델의 하나이다.

한편 동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지역 중심산업의 위상을 차지하면서도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방식을 통해 중점 지원을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제조 혁신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기관)에 사용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남우 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 작지만 강한 제조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역의 역량있는 기업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을 열었다.

총선 중기 정책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민주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협동조합 활성화·공정경제 확립 등 국회 해결 강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정책과제'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주제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회계법 등 환경 규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은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건의를 모아 이번 정책과제집에 담았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중소기업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경제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유탉)은 20일 전북은행 본점 8층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0년도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임유탉 은행장, 김성철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박종술 사무처장, 최경용 회원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이날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감사의 뜻으로 특별회원증을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이름답게 핀 국산 프리지아

20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다양한 색상의 국산 프리지아를 감상하고 있다. 프리지아는 대표적인 절엽식과 일년생 꽃으로 최근 각종 행사 취사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농촌진흥청은 소비 촉진을 위해 진한 핑크나 보라색 등 국산 품종 보급에 나서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문화 정보, '기술포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한눈에'

농진청, '농사로' 통해 농업유산 등 6개 분야 234건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문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종합·정리해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문화 콘텐츠는 농촌전통문화, 농촌관광, 농업유산, 농업인 직업세계, 농산물디자인, 전통지식자원 등 6개 분야 234건으로, 농촌문화 전반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촌전통문화분야는 농촌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풍습으로 농촌, 농업, 농민이 만들어낸 농경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 정보를 담고 있다. 세시풍속,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정보를 소개하고,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농촌관광분야에서는 농업활동과 자

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농촌관광실태조사부터 응용 사례, 관련 정보제공처를 소개한다. 농촌관광 사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점검표도 제공된다.

농업유산은 오랜 세월 형성되고 발달한 농업기술,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공동체 활동, 경관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도의 의미, 등재기준, 후보 지역을 소개하고 농업유산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농산물 디자인 분야에서는 농산업 분야 유망직업 100선과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 농업·농촌 관련 취·창업 사이트를 소개하고, 농촌교육농장에서 유망직업 진로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게임으로 농업 발전현황과 최신정보를 배울 수 있는 농업보드게임 '팜팜'의 톨킷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디자인분야에서는 우수 포장디자인, 포장디자인 체크리스트, 개산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직거래장터에서의 진열과 이동식 판매시설, 농산물 포장과 브랜드 디자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지식자원분야에서는 대대로 전승돼 온 기술과 지식자원 발굴 과정과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전통지식보호 논의 현황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 접속한 후 생활문화·농촌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 마스코트 '랜디'

공공캐릭터부문 특별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화) 마스코트 '랜디'가 20일 서울파트너스 하우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에서 공공캐릭터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LX마스코트 '랜디'는 봉제인형, 열쇠고리, 친환경빨대 등 완성도 캐릭터 상품 제작으로 공공캐릭터로는 유일하게 시상 무대에 서게 됐다.

LX는 지난해 캐릭터상품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랜디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윤상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 '꽃 선물 릴레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동참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복하자"고 동창 취지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전북도내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SNS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전국의 화훼농가를 비롯한 상공인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이번 캠페인의 확산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규 청장과 이선홍 회장

은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양창범 원장을 지명했다. 이 회장은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과 이재강 KBS 전주방송총국장을 지목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20 정기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위상제고 다짐

전주상의, 정기의원총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지난 1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20 정기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제회의원 77명중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정관개정(안)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총회 결과 전주상의는 상공회의소의 위상을 높이고 다수의 상공인이 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 제35조 의원정수를 현재 일반의원 75인 이내에서 82인 이내로 확대하고, 특별의원 수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하여 의원정수를 90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같은 의원정수의 확대는 주요 광역시 상공회의소의 의원정수가 100

여명이 넘고 인근 군산상의도 90명임을 감안할 때 전주상의도 도내 상공회의소와 전북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의원정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사무국 임원에 사무처장 외에 기획실장을 사무국 임원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전주상의는 기존 보다 상의 조직과 운영을 강화하고 회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전주상공회의소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 전주공장과 1백60여개 협력 업체들이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한 집행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e닭' 사은 이벤트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하림e닭'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림은 오는 3월 8일까지 '하림e닭' 공식쇼핑몰에서 18종 무지개세트 50% 가격 할인을 선보인다.

하림e닭 무지개세트는 ㈜하림만의 냉장 숙성을 거친 닭가슴살 원물 6종, 소시지 6종, 스테이크 3종, 큐브 3종 등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하림e닭 쇼핑물 구매율의 40%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